

사노피,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 총괄로 파비앙 슈미트 대표 선임



2019년 7월 9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제약사업부문인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는 7월 1일부로 국내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 대표에 파비앙 슈미트(Fabien Schmitt) 씨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파비앙 슈미트 대표는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거쳐 지난 2006년 사노피 본사 재무팀에 합류했다. 그는 2010년 아시아로 이동한 이후, 2016년 사노피 컨슈머 헬스케어 아태지역 재무 총괄(Head of Finance)을 거쳐 1년 만에 전 세계 90개국에 포함된 인터내셔널 지역(International Market)의 재무 총괄(Head of Finance)로 이동, 한국 등 90개국의 재경업무를 관장해 왔다. 또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부 통합 및 사업 개발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사노피는 이번 파비앙 슈미트 대표의 선임이 국내 컨슈머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노피가 추구해온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컨슈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비앙 슈미트 대표는 “한국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건강한 삶의 동반자’라는 사노피의 기업 비전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돼 기쁘다”며, “사노피의 다양한 셀프케어 솔루션이 한국의 소비자들에 보다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노피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는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셀프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세노비스와 돌코화이버, 변비치료제 돌코락스, 복통치료제 부스코판플러스정, 진해거담제 뮤코펙트, 만성정맥부전개선제 안티스탁스, 등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브랜드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

사노피(Sanofi) 그룹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가 당면한 건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통증 및 고통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만성질환 환자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전세계 100 개국 10 만여 직원과 함께 사노피는 과학적 혁신을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구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anofi.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ofi, Empowering Life